

Gay Liberation &

# 동성애자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 투쟁

the Struggle for Socialism

노엘 헬리팩스 지음



이 책은 *Gay Liberation and the Struggle for Socialism: Out, Proud and Fighting* (1988, Socialist Workers Party)를 번역한 것이다.

지은이

노엘 핼리팩스 Noel Halifax

1970년대 중반부터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해 왔고 영국 동성애자해방전선(GLF)의 회원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으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쟁점에 관한 여러 글들을 써 왔다.

## 동성애자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지은이 노엘 핼리팩스  
옮긴이 이원웅  
펴낸 곳 노동자연대  
wsorg@ws.or.kr  
<https://ws.or.kr>

등록 2012년 6월 11일(제399-2012-000020호)  
전화 02-2271-2395  
팩스 02-2271-2396

발행일 2026년 6월 8일

ISBN 979-11-85184-76-0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머지않아 전복된 후에 남녀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될지에 관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주되게 부정적 측면, 즉 사라지게 될 것들에 대체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새 세대가 성장하면 알게 될 것이다. 즉, 여성을 돈이나 다른 권력 수단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알지 못하는 남성들, 경제적 문제로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하거나 진정한 사랑 말고 다른 조건 때문에 자신을 남자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세대가 성장하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들이대는 잣대가 아주 하찮게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관습을 형성할 것이고 각 개인의 행실에 관한 중론도 그에 맞게 형성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 중

## 차례

재발간에 부쳐 ... 4
머리말 ... 6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 7
근원을 찾아서 ... 9
마르크스주의 전통 ... 12
1919~1933년 독일 ... 17
한낫의 암흑: 히틀러와 스탈린의 부상 ... 19
스톤월 항쟁과 동성애자 해방의 부상 ... 22
1980년대 ... 26
나야갈 길 ... 31

# 재발간에 부쳐

이 책은 책갈피 출판사에서 나온 《동성애자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30년 만에 재발간한 것이다. 번역을 새로 해서 이전 판본보다 훨씬 읽기 좋게 다듬었다.

이 책은 1988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 노엘 헬리팩스가 쓴 것으로, 한국에서는 국제사회주의자들S의 제안으로 1995년 번역·발간됐었다. 노엘 헬리팩스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성소수자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글들을 써 왔다. 그는 70세가 넘는 지금도 활발히 사회주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번역·출간될 당시 이 책은 한국 최초로 좌파적 관점에서 동성애자 해방을 옹호한 책이었다. 당시는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막 첫발을 떼던 시기였다.

당시는 아직 대다수 한국 진보·좌파가 성소수자와 섹슈얼리티 해방 문제에 관심을 두기 전이었다. 오히려 소련, 중국, 북한 같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영향 때문에 좌파들 내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적잖았다.

그런 상황에서 발간된 이 책은 상당히 독보적이었다. 당시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이 책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초기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국제사회주의 전통에 가까웠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불가결한 일부이다. 그래서 19세기 말 ~ 20세기 초 최초의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전통은 오늘날 대부분 잊혔다.

이 책의 번역·출간은 그 전통을 되살리고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구적 노력이었다.

이 책의 원서는 1988년에 쓰였다. 당시는 레이건과 대처 등 서구 우익 정부가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 성소수자 운동이 이룬 성과를 공격하는 ‘백래시’를 벌이던 때였다. 특히 HIV/AIDS(에이즈) 위기를 빌미로 한 도덕적 공황 부추기기가 절정에 달한 때였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편견과 질병 속에 목숨을 잃었고, 남겨진 이들은 파트너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슬퍼할 수도 없었다. 이런 백래시는 1988년 마거릿 대처가 학교에서 “동성애 조장”을 금지하는 지방정부법 제28조를 통과시키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책은 이런 우익의 거센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우리 측의 사상을 날카롭게 베틀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구와 한국 모두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전선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 대처의 지방정부법 제28조는 오랜 투쟁 끝에 2003년 폐지됐다. 영국을 포함해 오늘날 40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한국은 제도적 개선이 매우 더디지만,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성소수자 가시성과 대중의 우호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체제 내에 뿌리내리고 있고, 현 상황은 이 책이 쓰인 시점과 비슷한 점도 많다.

오늘날 세계적인 극우의 부상 속에서 ‘문화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도처에서 성소수자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의 수호자인 양 행세해 온 미국과 영

국에서 특히 심하다. 안타깝게도 좌파는 트랜스젠더 문제에서 분열돼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직후 극우 운동이 폭발적으로 부상했고, 지금도 극우는 기층 운동을 벌이며 공식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 우파는 매해 '퀴어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수만 명을 동원한다. 한편 쿠데타를 막아낸 운동 덕분에 들어선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우파의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 차별 개선에 냉담하다.

이 책은 동성애자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압도적으로 동성애자 운동으로 표현됐음을 염두에 뒀다. 여기에 소개되는 역사 속 여러 성소수자 해방 투쟁에는 언제나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이 포함됐음을 덧붙이고 싶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성애자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동성애 차별을 역사유물론으로 분석하고 더 폭넓은 성 해방의 문제와 연결하는 이 책의 관점은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해방 전략을 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을 끝장내고 싶어 하는 새 세대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동성애자 억압의 기원과 역사부터 해방 운동의 전략까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명료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스탈린주의가 아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뜻한다.

이 책은 스탈린주의가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등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억압했는지 비판한다. 또한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기를 거부하는 개혁주의 시도들이 아무리 급진적일지라도 어떻게 한계와 모순(심지어 배신)에 이르렀는지도 보여 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러시아 볼셰비키와 대비되는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경험이 그랬다.

책의 후반부는 '스톤월 항쟁'으로 시작된 현대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와 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스톤월 항쟁 이후 정치적 분화 속에서 벌어진 논쟁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오늘날 성소수자 운동에서 우세한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도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보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체성 정치는 특정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여긴다. 혼란 오해와 달리,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차별받는 정체성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에 기반한 투쟁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그 정치가 자본주의와 계급 차별에 맞선 집단적 투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제도적 대표성과 상징적 인정의 정치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

저자는 풍부한 역사적 경험을 들어 성소수자 해방이 자본주의에 맞선 더 큰 사회 변혁과 연결돼 있음을 책 전반에서 보여 준다. 특히 20세기 전반부 러시아와 독일 혁명이 연 성 해방의 가능성은 정말 흥미진진하다. 이런 가능성을 구현할 핵심 고리는 자본주의를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단결이다.

이 소책자가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

2026. 6. 5.

양효영 노동자연대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 머리말

이 소책자는 지난 20년간 동성애자 운동이 이룬 성과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쓰였다. [1988년] 영국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지방정부법 제28조는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지방 의회의 조치를 일절 금지한다. 이것은 공식 표현물에서 동성애를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다시 골방에 밀어넣으려는 것이다. 보수당은 편견에 맞서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일절 가로막으려 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고 보수당이 도입한 법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법 제28조는 성소수자 혐오 폭력을 조장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행위로 만들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이등 시민임을 명문화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언론들이 에이즈AIDS 문제를 빌미로 부추긴 대대적 백래시의 최근 국면이다. 백래시가 거세질수록 노동당은 동성애자 권리 방어에서 갈수록 후퇴했다. 노동당에 희망을 걸었던 동성애자 운동 내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은 순순히 골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법 제28조에 대한 광범한 반감은 사람들이 투쟁할 태세임을 보여 준다. 또, 그 반감은 동성애자 권리 방어 투쟁에 많은 이성애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운동 내에서 우세한 견해들이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는 분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여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한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노선이다.

성공적으로 싸우려면 우리 자신의 역사를 알고 무엇보다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동성애자 억압에 맞선 투쟁과 사회주의 운동 사이에는 1840년대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1930년대 스탈린주의가 부상하면서 깨졌다. 1960년대 후반 대중 투쟁이 되살아나기 전까지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전통은 잊혀 있었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동성애자 차별의 근원이 자본주의가 조직되는 방식에 있음을 밝히고,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분투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을 되짚고, 오늘날 동성애자 운동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차별에 맞서 싸울 방법을 알아 내려면 그 차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투쟁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차별 없는 사회, 동성애자 해방이라는 구호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없이는 동성애자 해방도 없고, 동성애자 해방 없이는 사회주의도 있을 수 없다.

#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은 동성애가 섭리를 거스른다는 케케묵은 반론을 늘 맞닥뜨린다. 인간 본성이 유전적 구조와 본능에 의해 결정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은 동성애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흔한 신화다.

첫 번째로 맞서야 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변태’나 ‘성도착자’라는 관념이다. 그러나 여러 사회들을 가볍게만 훑어봐도 무엇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느냐는 지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개념 또한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많은 사회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도 가장 유명한 사례다.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서 남성 간의 사랑은 이상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스 신화와 전설들은 동성 간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아도니스와 나르키소스의 신화는 아름다운 소년들에게 욕망을 품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남성 신에 관한 이야기다. 아도니스 숭배교는 그러한 동성애 관계를 장려하고 찬양하며 신전을 짓고 제전을 열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과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사회를 차별 없는 낙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사회는 노예제에 기초한 사회였고 주민 대다수가 자유민의 소유물인 노예였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마치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품종의 개처럼 길러졌다. 튼튼한 노예는 농사일, 순종적인 노예는 가사 노동을 맡기는 식이었다.

게다가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아서 남성들은 여성과 동등한 연인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여성과의 관계는 그저 출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랑은 소년들과 나누는 것이라 보았으니, 소름 끼칠 만큼 차별적인 사회였던 것이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 스파르타에서는 소년과 성인 남성 간의 사랑이 군대 조직에 활용됐다. 스파르타 군대에서는 길고 호된 도제살이를 통해 전사가 청년에게 전쟁 기술을 훈련시켰다. 전사와 훈련생의 관계는 친밀했고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 관계를 중심으로 전투 계획을 세울 정도였다.

봉건 시대 일본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도 스파르타 전사들과 비슷한 관념을 가졌다. 동성애를 다룬 당시의 연가와 설화들이 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결코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거의 모든 사회, 심지어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에서도 동성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는 오히려 인간 섹슈얼리티의 널리 나타나는 한 측면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해명돼야 할 문제는 왜 일부 사회에서 그것을 억압하느냐다.

##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영국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인 공상적 사회주의 운동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 운동은 영국 최초의 노동계급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차티스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성차별 문제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의 중심에 놓았다. 특히 그들은 여성이 자신의 성을 통제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 해방을 확고히 지지했다. 하지만 성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주로 대중의 무지를 탓했다. 교회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관념을 잔뜩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성차별에 맞선 투쟁은 곧 그릇된 관념과의 투쟁이었다.

여기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상보적이지만 똑같이 그릇된 두 전략을 도출했다. 하나는 계몽된 자본가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견해가 이성애 확고히 기초하고 있는 만큼, 설득만으로도 유력 자본가들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믿은 것이다. 물론 실제로 설득된 자본가는 거의 없었다.

또 다른 전략은 '선전으로서의 실천', 다시 말해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당장 실현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대안 공동체를 꾸리고 일부일처제가 아닌 생활 방식을 실험해 보려고 했다. 이런 실험들은 거의 다 실패했다. 특히 대다수 노동자에게 가족을 대체할 대안을 제안하는 데서 큰 실패를 맛봤다. 성차별은 단지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을 옥죄는 물질적 제약은 단순히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 근원을 찾아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이 차별에서 벗어날 방법에 관한 흥미로운 제안을 여럿 내놨다. 그러나 왜 성차별이 그토록 널리 퍼져 있고 그것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1884년 엥겔스의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이 나오기 전까진 비로소 성차별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성차별을 끝장낼 전망도 비로소 열렸다.

엥겔스는 여성 억압과 성차별의 근저에 가족 제도가 있다고 봤다. 가족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규정하고 구조화하는 사회의 핵심 단위다. 엥겔스는 다양한 계급 사회에서 나타난 상이한 가족 형태를 살펴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도 근본적으로 변해 왔음을 보여 줬다. 일부일처제는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고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의 산물이다. 엥겔스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가족의 기원이 계급의 등장과 있음을 보여 줬다.

인간 사회가 간신히 생존하는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발전시키면서 사유 재산이 등장했고,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사회는 불평등한 계급으로 나뉘었다. 소수가 사회의 부 대부분을 소유한 반면 다수는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재산권의 등장은 남녀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전의 성별 분업(여성은 식량을 채집하고 남성은 사냥과 목축을 하는 등)에서 여성은 높은 지위를 누렸다. 사회가 여성들이 생산한 식량에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 재산이 등장하면서 성별 분업은 완전히 불평등하게 이뤄졌다. 사유 재산을 소유한 소수가 사실상 전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등장했다. 재산을 통제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친아들에게 물려주려면 누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실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엥겔스는 이런 ‘모권’(여성들을 통해 이어지는 혈통)의 몰락을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불렀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에서 나타난 최초의 계급 대립은 일부일처제 하의 남녀 간 대립의 발전과 동시에 등장했고,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과 동시에 등장했다.”

사유 재산은 또한 다수의 무산자에 대한 소수의 지배를 보장하는 억압 기구, 즉 국가의 원초적 형태를 탄생시켰다. 여성의 지위를 부차화하는 법적 구조도 그것의 일부다.

오늘날에는 계급 등장 이전의 사회에 관해 엥겔스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많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계급 등장 이전 사회에 관한 엥겔스의 묘사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계급 사회가 형성된 과정은 엥겔스의 생각보다 훨씬 불균등하고 복잡했다. 그가 저서에서 묘사한 세부 사항들은 많은 경우 당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제도와 여성 차별이 계급 사회의 산물이라는 그의 핵심 분석은 여전히 타당하다.

엥겔스의 핵심 논지는 성차별이 인간 역사의 고정불변한 특징이 아니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결과임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라면 인간이 없앨 수도 있다. 성차

별은 없앨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사회의 조직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가족 제도는 계급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계급 사회의 해체, 즉 사회주의의 승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뿌리 뽑을 수 있다.



초기 산업화는 여성과 아이까지 공장으로 끌어들이며 전통적 가족을 해체했다

가족 제도와 여성 차별이 어떻게 동성애자 차별을 낳았는지 이해하려면 가족이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했

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혁명적인 형태의 계급 사회이며,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확장시켜야만 유지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설명한 대로,

“생산의 끊임없는 혁신, 모든 사회 조건의 끊임없는 교란, 끝없는 불확실성과 동요는 부르주아 시대를 그 이전 시대와 구분 짓는 특징이다. 고착돼 있던 모든 낡은 관계들이 유서 깊은 관념·사고방식들과 함께 해체되고, 새로 형성된 관계들도 모두 인습으로 굳기 전에 낡아빠진 것이 돼 버린다.”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가족에도 적용된다. 초기 산업화 과정은 기존 노동계급 가족을 해체시키고 생산 단위로서의 가족의 기초를 허물어 버렸다. 여성과 남성, 아이들 모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자유’ 노동자로서 공장으로 유입됐다. 1840년까지도 영국 공장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그들이 처한 끔찍한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은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생계 수단을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혼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포함해)이 노동계급 가족의 종말을 예상했다.

그러나 가족은 존속했을 뿐 아니라 강화됐다. 다만 매우 다른 형태를 띠게 됐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노동력 공급을 필요로 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배자들은 가족이야말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노동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갈수록 확신하게 됐다. 19세기 중반 이후로 노동계급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되살리려는 의식적 노력이 전개됐다. 그에 따라 여성과 아동은 특정 분야의 일 자리에서 점차 배제되고 일부 남성 노동자들이 ‘가족 임금’을 지불받았다. 여성들은 특히 가임 능력에 악영향을 주는 산업에서 배제됐다.

가족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을 날마다 재생산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노동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그들이 자본가들을 위해 잉여가치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더 중요하게는, 가족은 미래 세대 노동자들을 생산하는 수단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적·이데올로기적으로 훈련시켜고 교육해서 건강하고 순종적인 노동력으로 길러내는 것을 포

함한다. 이것이 이상적 핵가족 모델이다.

이러한 이상적 핵가족은 실제로는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다. 많은 자본가들이 충분한 '가족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많은 여성이 시간제나 전일제로 계속 일해야 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광범한 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통제가 이뤄졌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많은 남녀 노동자들이 그런 가족 형태가 실현되기를 기꺼이 바랐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려고 끔찍하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조건에서 하루 12시간씩 노동해야 했던 상황에서 핵가족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아동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고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급격히 연장됐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구성원 모두에게 '무정한 세계 속의 안식처'라는 환상을 제공했다. 자기 삶을 일부라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 준 것이다. 그럼에도 핵가족으로 가족이 재확립된 것은 [자본주의에서도]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 기반이 됐다.

그리하여 가족은 공적인 생산 영역과 분리된 '사적인' 삶의 영역이 됐다. 하지만 그 사적 영역 또한 자본주의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고 통제됐다. 자본주의에서 핵가족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핵가족만을 유일하게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여겨지게 하고, 핵가족에 수반되는 성별 분업을 미래 세대로 대물림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졌다. 즉, 가족은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

이런 엄격한 통제 하에서 동성애자의 존재는 문제가 된다. 동성애는 일부일처제 가족만이 유일한 생활 방식이라는 관념을 위협한다. 또한 성이 오로지 생식을 위한 것이라는 관념도 위협한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들과 달리, 이제 섹슈얼리티는 공동체의 전통과 통념에 따라 규제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고 규율하는 공적인 문제가 됐다.

그런 통제가 더욱 중요해진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은)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통적 촌락 공동체의 와해와 그에 따른 교회의 통제력 상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임금을 벌여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 대도시의 익명성 등 이 모든 요인이 동성애가 발전하고 만개할 조건이 됐다.

그러자 국가는 동성애자들을 골방 속에 가두기 위해 일련의 억압적 법률들을 도입하고 본보기식 재판관을 열어 모든 '비정상적' 섹슈얼리티를 억누르려 했다. 사회는 무엇이 '정상적'인 성적 행동인지를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범주를 만들어 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억압자들이다. 비록 피억압자들이 그 억압에서 유래한 명칭과 상징을 자신들의 힘과 자신감의 표시로 삼을 때가 종종 있지만 말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몇몇 계급 사회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가혹한 동성애 억압이 있었다. 이성애와 나란히 동성애를 수용한 사회들도 있었다. 그러나 동성애 억압이 체계화된 것은 오직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다. 자본주의에서 핵가족을 방어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실현하고 실천할 전례 없는 가능성 또한 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전통

성 해방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엥겔스에서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동성애자 차별을 포함한 성차별에 맞서 투쟁하고 조직화한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은 1934년에 끊어졌고 1960년대 후반에 재발견되기 전까지 잊히거나 역사에서 고의로 지워졌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주로 공식 공산당의 소행이었다. 오늘날 동성애자 운동 관련 저술가들도 대부분 이 전통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자와 동성애자 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 제2인터내셔널

제2인터내셔널은 노동계급의 대중 조직이었으며, 그 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당은 독일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었다. 노동자 수백만 명이 독일 사민당의 활동에 참여했고, 독일 사민당은 이들의 정치·사회·문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술자리 모임, 합창단, 자전거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조직한 독일 사민당은 마치 사회 안의 또 다른 사회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지하 활동을 했던 사민당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전까지 가장 크고 독보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독일 사민당은 사회주의 사상과 활동의 중심지였다. 엥겔스를 사상적 지도자이자 비평가로 삼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 아우구스트 베벨, '마르크스주의의 교황' 카를 카우츠키 같은 인물들을 지도자로 둔 독일 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와 혁명 정당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면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뒤죽박죽인 대중 정당이었다. 가지각색의 경향들이 당내에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에 적대적이었고 혁명적 사회주의에 반대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혁명에 반대하며 진화적·점진적 변화를 주장했다. 더 중요한 점은 독일 사민당이 말은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했지만 실천은 개혁주의적이었다는 점이다. 독일 사민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 수많은 당 기구들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사실상 그 구조에 기초해 있었다. 계급투쟁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독일 사민당은 노동계급과 노동계급 정당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인식했다. 실천적으로 독일 사민당에게 사회주의란 국가를 인수하고 당이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장악하는 것을 뜻했다.

다시 말해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당이 노동계급을 대체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독일 사민당은 현재 영국 노동당 내 좌파와 유사하다. 사상과 실천이 뒤죽박죽인 개혁주의인 것이다.

하지만 독일 사민당 내에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류도 있었고, 성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도 있었다.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성 해방을 위한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일부였고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이 시기 성 해방 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사회주의 운동 역사의

일부로 봐야 한다. 독일 사민당이 제2인터내셔널의 중심이었던 만큼, 성 정치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

1860년대 프로이센에서는 남성 간 동성애가 금지됐고 1871년에는 독일 형법에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그것이 악명을 떨쳤던 형법 제175조다.

독일의 지도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르면 1860년대부터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 싸웠다. 1861년 J. B. 폰 슈바이처라는 남성이 만하임에서 동성애 죄목으로 체포돼 재판받았다. 당시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초기 지도자였던 페르디난트 라살이 그를 변호했다. 슈바이처는 이후 1863년 전독일노동자협회에 가입하고 그 조직의 지도자가 됐다.

1897년에는 마그누스 히르슈펠트가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그 단체의 목표는 동성애 합법화와 이에 관한 대중의 인식 계몽,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는 최초의 동성애자 개혁 단체였다.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형법 제175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발의됐다.

독일 사민당이 그 운동에 앞장서며 사실상 중심적 구실을 했다. 아우구스트 베벨은 1898년 6월 13일 청원 운동을 대변해 하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개혁을 촉구했다. 진정서의 서명자 명단에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카를 카우츠키, 케테 쾰비츠 등 저명한 독일 사민당 지도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동성애자 억압 문제와 관련해 사회주의자들을 진정으로 시험대에 올린 쟁점은 1895년 오스카 와일드의 재판이었다. 그 사건을 구실로 영국 언론들은 대대적인 동성애자 배척 운동을 일으켰다. 배척 운동이 어찌나 거셌던지, 청원 운동을 벌이던 버나드 쇼는 자유당원들에게서 서명을 단 하나도 받아 내지 못했다.

독일 사민당의 이론지 《디 노이에 차이트》는 오스카 와일드를 방어했다. 베른슈타인은 1895년 4월과 5월, 두 호에 걸쳐 연재한 논설에서 도덕에 대한 유물론적 비판을 개진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자들이 “과학적 관점”에서 성 문제에서 지도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이라는 관념에 반대했다.

“과거에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이집트인들, 아시아의 여러 종족들은 동성애를 장려했다 ... 동성 간 교제는 워낙 오래되고 널리 퍼진 것이어서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인간 문명의 단계는 없다. 도덕적 태도는 역사적 현상이다.”

청원 운동은 1905년 의회 내에서 사민당과 나머지 당들 사이의 논쟁을 촉발했다. 독일 사민당 쪽에서는 아돌프 틸레가 그 논쟁을 이끌었다. 당 기관지 〈포어베르츠〉는 청원 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요컨대 당시 독일 사민당은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 싸운 훌륭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론적 혼란도 있었다. 베른슈타인의 논설은 이 쟁점에 관해 독일 사민당이 내놓은 최상의 글이었다. 그 글은 관용을 설파하고 인간 본성이 불변하다는 견해를 반박했다. 그러나 성 개혁가들의 이론에는 많은 결함과 혼란이 있었다.

그 개혁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은 마그누스 히르슈펠트였다. 그는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어진 운동과 활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동성애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남성이나 여성과는 다른, 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제3의 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생물학적 결정론의 자유주의적 변형을 신봉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남성, 여성, 제3의 성으로 태어나며 그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특징이 정해진다. 제3의 성도 다른 두 성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사회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히르슈펠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히르슈펠트 사상의 전제는 반동적이었으며 이후 나치가 동성애자들을 ‘유전적 일탈’이라는 이유로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됐다.

영국에서는 독일보다 좌파가 훨씬 취약했다. 소위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은 규모가 작았고 성 정치를 포함해 많은 쟁점에서 반동적 태도를 취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일은 고립된 개인들의 몫이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에드워드 카펜터다.

카펜터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우애, 성적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고 믿었다. 1894년 그는 “동성 간 사랑”을 주제로 공개 강연을 했으며, 이 강연은 맨체스터 레이버 출판사에 의해 나중에 책으로 출간됐다. 오스카 와일드 재판을 계기로 동성애자 혐오 광풍이 영국을 휩쓸자 카펜터는 고립됐지만, 그의 책 《사랑의 성숙》은 1914년까지 5만 부가 팔렸다.

카펜터의 견해는 히르슈펠트와 유사했지만 ‘제3의 성’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잠재돼 있다고 봤다. 그는 급진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상적 사상가였다. 교육과 ‘동지들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모범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그는 ‘중간적 성’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라니안[동성애자 남성을 가리키는 카펜터의 용어 - 헬리팩스] 정신은 전면화된 인류애와 유사한 무엇인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고 제약하는 금전적·법적 굴레와 그 밖의 다른 외적 제약들을 개인적 애착과 공감으로 대체해 언젠가 못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위대한 운동에서 우라니안들은 전위를 이룰 운명일지도 모른다.”

카펜터는 성에 관해 총 네 권의 소책자를 썼다. 그는 당시 영국 저자들 중 가장 뛰어났지만,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베른슈타인은 히르슈펠트의 사상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개혁주의 프로젝트를 고스란히 유지했다. 무지와 비과학적 사고가 문제의 근원이므로,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사회를 계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베른슈타인은 독일 사민당이 사회를 교육하고 변화시킬 수단이어야 한다고 봤다. 히르슈펠트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좀 더 중시했다.

독일 사민당은 말은 거창해도 행동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남성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하는 운동과 선동을 하기는 했지만, 독일 사민당은 그 쟁점을 자유주의적 시민권 문제로 봤다. 여러 자조 모임을 거느리고 ‘사회 구조 안의 사회’를 이루고 있던 독일 사민당은 사회의 정상적 일부로 인정받

는 노동계급의 일부에 확고한 기반을 뒀다. 차별의 물질적 토대인 가족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독일 사민당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내에서 구축됐고, 그 사회의 가장 고착된 '상부구조' 하나가 바로 핵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라는 비전을 가리킨다는 것, 즉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규정이 사회적으로 무의미해지고, 가족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분리가 사라지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생각은 독일 사민당 당원 대부분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독일 사민당의 전략은 혁명적이 아니라 개혁주의적이었다.

이후 로자 룩셈부르크가 베른슈타인과 논쟁하며 강조했듯이, 개혁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충돌은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쟁취할 경로를 둘러싼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민당의 행동을 통해 비극적이고 생생하게 입증됐다. 독일 사민당은 말로는 나무랄 데 없는 전쟁 반대 입장을 표방했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자 자국의 전쟁 공채 발행을 지지하고 자국 정부를 지지했다. 제2인터내셔널 소속의 다른 정당들도 거의 다 똑같이 행동했다. 개혁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민족주의가 말뿐인 국제주의를 압도했다.

이후 섹슈얼리티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것은 볼셰비키와 제3인터내셔널의 몫이 됐다.

## 볼셰비키

1914년 제2인터내셔널의 몰락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결과로 1919년 제3인터내셔널이 탄생했다. 국제주의자들의 신뢰를 잃은 독일 사민당은 더는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이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혁명가들에게 영감과 지도의 주요한 원천이 됐고, 낡은 질서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혁명적 격변의 파도가 유럽을 휩쓸었다. 모스크바, 글래스고, 핀란드, 카탈루냐 등지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왕궁을 습격하고 자본의 지배를 뒤흔들었다. 여러 곳에서 낡은 권력 구조가 붕괴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노동자 국가 수립으로까지 나아간 곳은 러시아뿐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의 낡은 정당들은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자국 지배계급과 동맹을 맺었다. 국제주의자들은 제2인터내셔널에서 나와 볼셰비키와 함께 제3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러시아를 모범 삼아 공산당을 건설하려 했다.

이전 시기 성 정치의 역사가 좌파 역사의 일부였듯이, 20세기 성 정치의 역사 또한 러시아 혁명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혁명이 성공하고 2개월이 지난 1917년 12월, 볼셰비키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을 모두 폐지했다. 임신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이혼권이 인정됐고, 성관계 동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다른 나라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이뤄 낸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볼셰비

키는 두 달 만에 이뤄 냈다. 혁명으로 도입된 법적 자유의 폭은 전무후무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를 단지 그들의 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새 법과 더불어, 여성 차별의 물질적 토대를 없애기 위해 가족 제도의 대안을 만들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됐다. 여성들이 고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동 식당, 세탁소, 보육원이 세워졌다. 이 모든 일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낙후한 나라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그런 노력들은 혁명 자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궁핍한 현실에 제약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성차별의 근원을 어떻게 제거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실천으로 보여 줬다.

1923년에 볼셰비키의 그리고리 밋키스는 이렇게 썼다.

“현재 소련의 성 관련 법률은 10월 혁명이 이뤄 낸 것이다. 10월 혁명이 중요한 것은 단지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할을 보장하는 정치적 현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거기서 출발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 나가는 혁명들을 위해서도 중요했다 … [소비에트 법률은 — 헬리팩스] 해를 입는 사람이나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없는 한, 국가나 사회가 성 문제에 결코 간섭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유럽의 법률에서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성애, 남색 및 다양한 성적 만족의 유형들을 소비에트 법률은 이른바 ‘정상적인’ 교제로 간주한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전개된 높은 수준의 투쟁의 산물로서 ‘성 개혁을 위한 세계 연맹’이 결성돼 세 차례의 국제 대회(1921년 베를린, 1928년 코펜하겐, 1930년 비엔나)가 열렸고, 소련은 그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192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실천과 정치는 이전 시기의 시민당이나 진보적 개인들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동성애에 대한 인정을 얻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성애자라는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혁명은,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의 모든 오물”을 씻어 내고 성차별의 토대인 가족 제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이 시작된 곳은 러시아였지만 그 혁명의 성패를 결정지은 곳은 독일이었다. 독일 혁명의 패배(1919년의 실패에서 시작해 1933년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를 배경으로 러시아 혁명은 고립된 채 패배했다. 러시아에서는 내전과 침략군에 의해 고립되고 포위된 노동계급이 말 그대로 와해돼 하나의 계급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20년대에 이르자 볼셰비키는 와해되고 있던 노동계급을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혁명의 변질이 상당히 진행됐다. 스탈린의 승리와 1924년에 발표된 그의 ‘일국사회주의’론은 성 해방을 위해 투쟁해 온 사회주의 전통의 결정적 패배를 의미했다. 스탈린이 승리한 주요 원인 하나가 독일 혁명의 실패였다.

# 1919~1933년 독일

1918년 독일에서 병사와 수병, 노동자들이 황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자, 그동안 개혁주의 성격을 공공연히 드러내 온 독일 사민당이 옛 질서를 지키는 주요 보루의 하나가 됐다. 로자 룩셈부르크, 클라라 체트킨, 카를 리프크네히트 등의 혁명가들은 고립됐다. 그들은 자신들의 당이 없었고 주변화됐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가 독일 사민당의 지령으로 살해당하고, 독일 사민당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유지한 덕분에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독일 황제의 궁전을 습격했을 때, 마그누스 히르슈펠트는 군중 앞에서 새 시대의 도래와 모든 착취와 차별의 종언을 고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독일 사민당이 기존 국가기구를 인수함으로써 그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개혁주의 정당이 정부를 운영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런 만큼 노동자 대다수가 초기에 '우리들의' 정부를 지지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가 독일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계급투쟁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독일의 높은 투쟁 수준은 파업 통계와 사민당의 당원 수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도 반영됐다. 히르슈펠트가 베를린에 '성 연구 재단'과 그 유명한 '성 과학 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1919년이었다. 1921년에 그는 '성 개혁을 위한 세계 연맹' 제1차 대회 소집을 도왔다. 그 대회는 혁명 러시아의 법률을 다른 나라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했다.

히르슈펠트는 상황의 압력으로 좌경화했지만, 끝까지 개혁주의자이자 사민당원으로 남았다. 훗날에야 자신의 개혁주의에 어느 정도 의구심을 품었을 뿐이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중을 계몽할 최상의 발판으로 여겼다. 개혁을 달성하려면 공산주의자들의 지지에 기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말이다.

베를린은 동성애자 하위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낡은 사회가 해체되고 낡은 가치관에 대한 불만과 도전이 광범한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가 용인될 여지가 생겨났다. 영국 작가인 크리스토퍼 이셔우드나 W. H. 오든처럼 (두 사람 모두 1930년대에 공산당 동조자들이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동성애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는 것처럼 베를린으로 갔다. 이셔우드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베를린에 가는 이유는 사내들 때문이었다." 억압적인 영국과 달리 그곳에서는 게이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은 지속될 수 없었다. 전쟁에 뒤이은 위기와 불황으로 독일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체제는 지속성 있는 개혁을 허용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독일에는 강력한 조직 노동계급이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악화되는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적 실천과 성 해방의 결합을 주장한 빌헬름 라이히(1897~1957)

10년에 걸쳐 투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 조직이 나치에 의해 분쇄되고 말았다.

## 빌헬름 라이히

그 시기에 공산주의적 실천과 성 해방의 결합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프로이트의 제자인 빌헬름 라이히가 있다. 라이히는 성차별이 자본주의적 지배의 가장 나쁜 폐단 중 하나이고, 노동자들을 사회 질서에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주요 수단의 하나라고 봤다. 성은 해방을 가져오고 기존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이 있는 힘이라고 라이히는 주장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혁명적인 공산주의 노동자가 되려면 스스로를 성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은 당원들에게 정치 이론과 활동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성적으로도 해방시켜야 한다고 라이히는 주장했다.

1920년대에 공산당원이었던 라이히(1929년에 당에서 제명됐다)는 특히 공산주의 청년 동맹에 영향력이 있었다. 신입 청년들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을 것과 성을 터부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았다. 라이히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성적으로 해방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란 강요된 일부일처제 가족 생활의 종말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히의 사상은 혁명의 물결이 넘실거리던 1920년대 초의 분위기와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1929년에는 러시아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태도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히의 영향력이 정점에 있었을 때에도 그의 사상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었다. 그는 억눌린 성의 개인적 해결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프로이트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그가 공산당과 결별한 후에 더 심해졌다. 또한 그는 성을 기계적으로 이해했다. 라이히는 오르가즘이 열이나 빛과 같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믿었다. 실제로 그는 오르가즘이 푸른 광채를 발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해방은 그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약점은 프로이트의 성적 발달 단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이히와 프로이트 모두, 인간이 거의 모든 대상에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사회가 이 무정형적 성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과정을 단선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성애가 정해진 단계를 거친다고 봤다. 그리고 그 단계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을 판단했다. 라이히는 자본주의가 가족을 강요하고 성적 만족을 억누름으로써 개인의 성적 발달을 제약한다고 봤다.

그런데 그의 이론에서 동성애는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의 하나였다. 그에 따르면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의 초기 단계에 갇힌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해방'은 이성애로 '진보하는' 것을 뜻했다. 동성애는 퇴행이었다. 그런 견해 때문에 라이히는 나치의 부상을 성차별과 동성애와 결부시키려 했다.

# 한낮의 암흑: 히틀러와 스탈린의 부상

1930년대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암울한 시기의 하나였다. 그 10년 동안 독일과 스페인에서 파시즘이 승리하고, 소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결국 스탈린이 지배하게 됐다.

독일은 동성애자 운동의 중심지이자, 러시아 바깥에서 가장 큰 공산당과 대중적인 독일 시민당이 있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없이 히틀러가 집권했다.



나치 수용소의 동성애자들. 분홍색 삼각형이 그들의 표식이었다.

나치는 거리를 장악하기 위해 돌격대SA의 동성애자 대원들을 이용했다. 그 후 돌격대는 '장검의 밤' 때 친위대SS에 의해 제거됐고, 친위대가 테러의 주된 도구가 됐다. 나치의 초기 지도자 일부가 동성애자였다는 이유로 나치가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가차없이 깨졌다.

1933년에 집권한 나치는 유대인뿐 아니라 동성애자, 사회주의자, 로마인[집시는 이들의 멸칭이다], 노동조합원도 공격했다. 히르슈펠트의 연구소가 습격받고 내부가 불탔다.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정당과 공산당 계열의 정당들이 금지되고 활동가들이 대거 검거돼 수용소로 보내졌다. 가스실에서 동성애자 수십만 명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동성애자의 상징으로 쓰이는 분홍 삼각형은 히틀러의 수용소에 갇힌 동성애자들이 달았던 표식에서 기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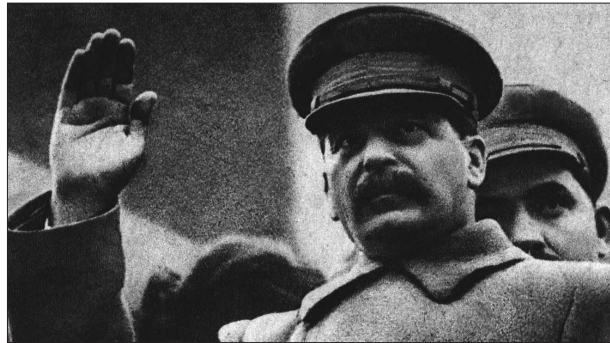
노동계급 조직의 파괴를 바탕으로 새 독일이 건설됐다. 유대인과 더불어 모든 '일탈적' 집단이 희생양으로 이용됐다. 민족적 순수성을 달성하고 우성 인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건전한 요소들이' 제거됐다.

새 사회는 자유주의라는 허울 없이 적나라한 국수주의, 인종주의, 끔찍한 성차별주의를 나타내는 자본주의였다. 계급 사회와 자본주의의 산물들이 극단으로 나타난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태가 암울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에 스탈린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강제 공업화 계획을 추진했다. 혁명의 성과가 모두 뒤집혔고 노동자와 농민은 공업화의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조직이 산산조각 나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노동 강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런 반혁명에 대한 저항은 강제 노역이나 유형, 사형으로 처벌됐다. 혁명이 잿더미가 된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즉 국가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이는 러시아를 근대화하고 서방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었다. 공산당 상층부의 국가 관료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됐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시베리아의 노동 수용소에서 죽어 나갔다. 노동계급의 당을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은 혁명가들을 모두 죽여 없애야만 했다. 많은 고참 볼셰비키 당원들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해 당에서 투쟁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에서 축출돼 추

방되거나 살해당했다. 스탈린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혁명가 중 한 명인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좌익반대파가 형성됐다. 이 경우에도 좌익의 패배는 동성애자들의 패배를 뜻했다.



스탈린주의는 성 해방을 향해 러시아 혁명이 이룬 성취를 파괴했다

1920년대에 혁명이 변질되면서 여성들이 이룩한 성과들은 서서히 파괴됐다. 공동 식당과 보육원은 폐쇄되거나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열악해졌다. 혁명으로 시작된

가족 제도 폐지 과정은 완전히 중단됐다. 스탈린의 반혁명 이후에는 오히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핵심 제도로서 가족이 장려됐다.

1934년에는 볼셰비키가 제정했던 진보적 성 관련 법률이 모두 폐지됐다. 동성애는 불법화됐다.(이 글을 쓰는 1988년에도 여전히 불법이다.) 지배계급의 일원이 아니면 임신 중지도 불가능하게 됐다. 여성들은 어머니로 이상화됐고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훈장을 받았다.

성 정치에 있어서 스탈린의 소련과 히틀러의 독일은 소름 끼치게 서로 닮아 있었다. 독일에서 동성애는 '볼셰비키 습속'으로 비난받았고, 소련과 각국 공산당들(사실상 소련 외교 정책의 도구로 전략해 버린)은 동성애를 '부르주아적 일탈'로 규정했다.(아직도 일부 좌파들은 이런 규정을 고수한다.) 1930년대에 양측의 포스터와 선전물은 마치 거울상 같았다. 양측 모두 아이들을 안은 건강하고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스탈린주의하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나치 예술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의존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스탈린주의가 좌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에 의해, 해방을 위한 투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라는 기억을 모조리 파괴하다시피 했다.

영국에서는 공산당의 스탈린주의와 노동당의 개혁주의가 좌파를 전적으로 지배하다시피 했다. 둘 모두 성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서 반동적 태도를 취했다. 공산당은 앞서 언급한 소련에서 온 사상에 온통 물들어 있었다. 노동당은 감리교회와 '품격 있는 노동계급'과 오랫동안 결부돼 왔다. 일체의 성적 '일탈'이 지배계급적 또는 중간계급적 타락으로 간주됐다.

레닌이 "천대받는 사람들의 축제"라고 말한 러시아 혁명이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관한 기억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지키는 일은 최악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한 고립된 소그룹들의 몫이 됐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주변화된 만큼 왜곡을 피할 수 없었다. 1960년대에 투쟁이 분출하면서 그 사상은 비로소 재발견될 수 있었다.

스탈린주의 전통은 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동성애를 나치와 엮어서 비난했다. 둘 다 쇠락하는 자본주의의 퇴폐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공산당의 태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로서 미국의 《뉴 매시즈》는 1934년 메이 웨스트의 연극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 내향성은 본질적으로 계급적 질병이자 방탕한 삶의 직접적 결과다. 그러한 삶은 더 큰 자극이나 감흥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권태의 심연에 빠진다. 내향성은 언제나 사디즘과 마조히즘이라는 성도착의 쌍둥이 요소와 결합돼 있으며, 쇠퇴하는 계급의 허약한 대표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증상이다. 히틀러주의가 사디즘적 잔혹성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불치병의 뚜렷한 증상이다 ... 히틀러 총통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동성애는 정치적 수완으로 격상됐다.”

위 글이 발표되던 바로 그 시기에 수많은 동성애자가 히틀러에 의해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산당원과 공산당 동조자 중에는 여러 저명한 동성애자 작가들이 있었다. W. H. 오든,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스티븐 스펜더, E. M. 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당시 침묵을 지켰다. 어느 정도는 죄의식(중간계급이라는 죄의식과 동성애자라는 죄의식이 뒤섞인) 때문이었고, 어느 정도는 암울한 시대상 때문이었다. 동성애자인 공산당 동조자들 중에서는 오직 앙드레 지드만이 소련의 반동적 입장을 비판했고, 그 때문에 '좌파'로부터 지독한 공격을 당했다. 1930년대에 공산당 동조자였던 사람들 대다수가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좌파 정치를 포기했고, 일부는 우파와 손을 잡기도 했다. 오든은 가톨릭에 귀의했고 이셔우드는 동양 신비주의에 심취했다.

그러나 파시즘이 위세를 떨치던 1930년대에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비록 스탈린주의 정치의 일부 측면들에 의심을 품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봤다.

동성애는 골방 속으로 숨어 버렸고 더는 좌파 전통의 일부가 아니게 됐다. 동성애자로 사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언어를 쓰는 '이쪽' 세계에 사는 것이 됐다. 그 삶은 게이바와 비공개 클럽, 공중 화장실, 은어의 세계 속으로 모습을 감춰 버렸다.

# 스톤월 항쟁과 동성애자 해방의 부상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스탈린주의라는 거대한 획일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1970년 폴란드에서 두 세대 동안 잠잠했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다시 분출해 동·서방 지배자들을 모두 위협했다.

그러나 투쟁의 분출이 가장 강렬하게 각인되고 좌파의 사고를 변화시킨 것은 서방에서였다. 스톤월 항쟁과 이후 '동성애자해방전선'Gay Liberation Front의 결성은 좌파 내에서 동성애자 해방과 성적 자유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전환점이 됐다. 그러나 이전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가 더 폭넓은 계급 투쟁의 일부로서만 이해될 수 있듯이, 동성애자 정치의 탄생과 진화 역시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스톤월 항쟁은 1920년대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투쟁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자본주의 시대 내내 천대받는 사람들의 항쟁은 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항쟁은 높은 수준의 일반화된 투쟁과 맞물릴 때에만 결실을 맺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항쟁이 흑표범당의 탄생으로 이어졌듯이, 스톤월 항쟁 역시 하나의 정치 운동을 낳았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정치 투쟁 고양기의 산물이었다.

그 고양기 또한 많은 요인의 산물이었다. 자본주의 자체의 변화도 그중 하나였다. 자본주의가 들어선 이래 가장 긴 호황이 1940년대에 체제를 불황의 늪에서 건져 올렸고 이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이어졌다. 서방 경제가 팽창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수많은 여성이 새롭게 확장하는 경공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됐다. 전통적 가족 생활이 빠르게 변화했다.

경기 팽창은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들이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립을 누리게 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높아진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개혁을 허용해 가족의 기초를 흔들었다. 그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국가였다. 물론 그 복지국가는 체제의 온갖 성차별적이고 반동적인 오물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이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

피임약 개발과 피임법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이성애자들의 성과 생식 사이의 연관성이 최종 끊어졌다.

1930년대 대량 실업 시기처럼 노동계급이 가족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시절은 끝났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끊임없는 임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관대한 1960년대'는 많은 면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성장한 결과였다. 생활 수준과 앞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세기 전반에 우세했던 낡은 도덕적 가치들이 약화됐다.

그러나 반동적인 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은 투쟁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1920년대와 1930년대, 1940년대의 패배 이후, 노동계급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규모가 늘고 자신감도 커졌다. 파업들은 짧고 빈번했으며 대개 요구한 바를 성취했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중 투쟁이 분출했다.

미국의 반전 운동, 1968년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1969년 이탈리아, 1972년과 1974년 영국 등 1960년대 후반부터 투쟁의 물결이 산업화된 지역을 휩쓸면서 동·서방의 시스템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베트남 전쟁은 격동과 투쟁이 고조되는 이러한 흐름의 초점이 됐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반전 운

동에 동참했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다. 흑인들이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차별과 대결하기 시작하면서, 흑인 거주 지역이 거대한 항쟁의 무대가 됐다. 이러한 모범에 고무돼 여성 운동이 만개했다. 초기 여성 활동가들은 앞선 평등권 운동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체제가 전방위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차별에 대한 자각과 저항이 분출한 시기였다. 혁명적 좌파가 주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성장했다. 동성애자 정치 또한 부활했는데 스톤월 항쟁이 바로 그 계기였다.

## 스톤월 항쟁

1969년 6월 27일 금요일 밤, 스톤월 바는 어느 때처럼 만원이었다. 스톤월 바는 뉴욕 중심가 그리니치 빌리지 크리스토퍼가에 있는 게이 바였고, 그리니치빌리지는 그때도 지금처럼 그 도시의 동성애 중심지였다. 동성애자 200여 명이 짝 들어차 있었고 그중 50명 남짓은 크로스드레서였다.

스톤월은 허름한 술집이었고 손님 대부분이 젊은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게이 바가 대개 그랬듯 그곳도 마피아가 관리했기 때문에 입장료와 술값이 비쌌다. 경찰에 뒷돈을 찢러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뒷돈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따금 그곳을 단속했다. 1969년의 그 더운 밤에도 경찰관 8명이 스톤월을 급습했다. '요정들'[남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 - 역재]의 바에서 8명만 출동한 것이다. '요정들'이 감히 반격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무슨 말썽이 생기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단속은 평소대로 이뤄졌다. 경찰관들은 동성애자들을 연행해 경찰 호송차에 태웠다. 경찰서에 데려가 신문하고 신원을 확인해 미성년자라거나 드랙이라는 등 무슨 구실로든 입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군중이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항의하며 술집 주위로 몰려들었다. 갑작스레 불어난 군중은 갈수록 격앙되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은 자신들에게 달려드는 성난 군중과 맞닥뜨렸다.

경찰관들은 텅빈 바 안으로(일설에 따르면 총을 뽑아 들고) 후퇴했다. 군중은 호송차에서 동성애자들을 풀어 주고, 경찰관들이 오도가지 못하고 있는 스톤월 바를 포위했다. 꼼짝없이 안에 갇힌 경찰관들은 전화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술 경찰 부대'를 파견했다. 보통은 흑인 빈민가에만 출동하는 중무장 진압 부대였다. 그들의 투입은 소요에 불을 붙였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쓰레기통이 투척되고, 경찰차가 불탔다.

소요는 해질 무렵 시작해서 새벽녘에 끝나는 양상으로 3일간 이어졌다. 경찰은



세계적 저항 물결 속에서 벌어진 스톤월 항쟁

그 구역에서 후퇴해야 했다. 8월에 동성애자해방전선이 결성될 때까지 여름 내내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경찰은 물론 뉴욕 전체를 놀라게 했다. '정상적'으로 여겨지던 일상적 천대가 반발을 촉발한 것이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부패한 경찰과 손잡고 동성애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기생충 같은 게이 바 소유주들에 맞서 운동을 일으켰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공개 회합을 열고 신문 〈아웃킵〉을 발행했다. 그리고 경찰의 손에서 크리스토퍼가를 되찾아 오기 위한 행동의 날을 정했다. 그 날 거리에서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자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스톤월 항쟁을 기리는 '자긍심 행진'이 세계 도처에서 열린다.(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십만 명까지 모이기도 한다.) 그 항쟁은 '핑크 경제' 소유주들에게 맞서는 운동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소유주들이 그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 항쟁의 결과와 성과

동성애자해방전선이라는 명칭은 미국 국가의 적인 베트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에서 따온 것이다. 이들은 혁명적 투쟁에 대한 동일시에서 출발했다.(오늘날에는 드물지만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 1970년대 초 동성애자 운동의 정치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혁명적 관점을 바탕으로 했고 동성애자 차별을 이해하고 그 차별에 맞서 싸우는 데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었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거리에서 탄생한 투쟁 조직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 투쟁으로 보냈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의 구호에는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응축돼 있다. “골방에서 나와 거리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외쳐라: 나는 게이이고 그것이 자랑스럽다.” “병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병자라고 부르는 사회다.”

이들은 동성애자가 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바뀌어야 하는 건 자신들이 아니라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공공연히 투쟁할 때에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자 차별에 맞선 투쟁은 커밍아웃에서 시작되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괴롭힘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의 태도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한 강조였고 커다란 진전이었다.

아마도 동성애자 운동의 가장 큰 변화는 커밍아웃에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일 테다. 동성애자를 가장 가까이서 천대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회가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동성애자 차별을 분석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방법의 기초를 제시했다. 바로 투쟁을 통해서 차별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체제에 맞선 더 광범한 투쟁과 일체감을 가졌다. 그들은 흑표범당과 논쟁을 벌여 그들의 마초적인 동성애 혐오 관념과 대결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동성애자해방전선이 그 논쟁에서 승리했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동성애 쟁점과 관련된 행동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에도 관여했다. 그들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당시 흔히 쓰이던 말로 하면,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 항쟁의 결과와 약점

1970년 영국에서도 동성애자해방전선이 결성돼 수천 명을 거리로 불러 모으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렇다 해도 동성애자해방전선은 주되게 미국의 산물이었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이 때때로 드러낸 순진한 낙관주의는 미국의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들의 약점은 오늘날 서방의 많은 좌파들도 공유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미국 신좌파의 히피들과 이피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일상 생활에서 혁명을 실천'하려 했다. "좋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해라," "말하지 말고 행동해라"가 그들의 구호였다. 기존 좌파의 이론과 정치를 낡은 것이라 업신여기면서 당장 혁명을 원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듬해나 적어도 2~3년 안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였다. 스탈린주의의 영향력도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기에 새 투쟁 물결은 커다란 마오주의 조직들을 낳았다. 성 정치에 있어서 그 조직들의 입장은 낡은 공산당만큼이나 반동적이었다.

그 결과 새로운 동성애자 운동은 당면 투쟁에서 얻은 집단적 경험 외에는 성차별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이론이 거의 없었다. 한동안은 그것만으로도 거대한 진전을 이뤘지만 투쟁이 사그라들자 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혁명적 노선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다. 애초 투쟁 수준이 끝없이 고조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다. 1970년대 초의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계급투쟁의 리듬과 차별에 맞선 투쟁의 리듬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었다.

계다가 낡은 공산당에 대한 반발은 조직과 기구 일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 스탈린주의식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조직의 필요성 일체에 대한 거부로 혼란스럽게 나타났다. 토론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조직 구조의 필요성마저 거부됐다. 그 결과 의장이나 회의 규칙 없이 수 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가는 등 조직 부재에 따른 난맥상이 만연했다.

영국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 영국 동성애자해방전선은 계급투쟁이 한창이던 1970년에 결성됐다. 노동자들이 보수당 정부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있던 때였다. 노동계급이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은 당시 대부분의 활동가들에게 명백했다. 그래서 차별에 맞선 투쟁과 사회를 변화시킬 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을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노동조합 제약 법에 반대하는 시위, 광원 노동자 투쟁과 펜턴빌 항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 공영 주택 세입자들의 운동 등에서 동성애자해방전선 대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랜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시위 속에서 동성애자해방전선 활동가들은 좀처럼 적극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강제로 쫓겨난 적도 거의 없었다. 이처럼 영국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미국 동성애자해방전선에는 전혀 없었던 조직 노동자들과의 연계가 미약하게나마 있었다. 그 덕분에 초기에는 미국 동성애자해방전선이 드러낸 몇몇 심각한 약점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츰 투쟁이 퇴조하자 노동당에 대한 환상에 취약해졌다.

# 1980년대

대중 투쟁의 시기는 다양한 수준에서 체제를 위협했다. 하지만 돌파구를 열지는 못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개혁주의 정당들이 다시 노동자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음에 따라 투쟁의 물결이 퇴조했다. 노동자 투쟁의 성과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고 운동이 수세에 몰렸다. 1976년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사회 협약이 더한층의 후퇴와 사기 저하를 불렀다. 투쟁을 지속하려던 소수의 노동자들이 노조 지도부에 의해 고립됐기 때문이다.

후퇴는 1980년대에도 계속됐다. 계급투쟁은 1970년대와 달리 기동전이 벌어지는 양상이 아니라 가끔씩 총력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되게 참호전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에 이룬 여러 성과들이 공격 앞에 결국 무너졌고 노동자 운동이 포위됐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의 핵심에 있는 일터의 일반 조합원 조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패배의 정도는 1920년대와 1930년대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정치 지형은 계속해서 우경화됐다.

동성애자해방전선 이후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는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동성애자 운동은 변화한 분위기에 대응해 노동당 지지나 라이프스타일 정치로 (또는 둘 다로) 움츠러들었다. 동시에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쟁취한 성과를 겨냥한 우파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계급투쟁이 퇴조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붕괴했다. 그러나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동성애자 해방을 좌파의 정치 언어로 복귀시켰다. 혁명적 운동은 동성애자 운동으로부터 배웠고 성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사회주의의 잃어버린 전통을 재발굴하기도 했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또한 '동성애자 평등권 운동' Campaign for Homosexual Equality과 같은 당시 기성 동성애자 개혁 단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런 단체들에게 변화란 조심스러운 활동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60년대의 법 개정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성애자 평등권 운동'이 보기에 동성애자해방전선의 거리 운동과 체제 비판은 동성애자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짓이었다. '동성애자 평등권 운동'은 적절한 위원회와 높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해법으로 여겼다. 권력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초기 동성애자 운동[동성애자해방전선]은 그런 견해와 대결했지만 그런 견해는 또다시 동성애자 운동에서 주류가 됐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의 활동으로 가장 득을 본 것은 '동성애자 평등권 운동'과 동성애자 기업인들이었다. '동성애자 평등권 운동'은 말이 통하는 인사들과 사석에서 만나 협상하던 '골방' 속 세계에서 벗어나, 공공연히 활동하는 압력 단체가 됐다. 동성애자들의 영역은 비밀 클럽에서 시장으로 진출했다. 동성애자 운동 활동가들이 연 새로운 시장에서 핑크 경제가 번창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장 급진적인 동성애자 운동의 정치조차 공유하고 있던 결정적 약점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동성애자가 그들이 겪는 차별에서 비롯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운동 내부에는 처음부터 분열이 있었다. 레즈비언들은 초기에 게이들로부터 분열해 나왔다.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가 이성애자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동성애자해방전선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레즈비언이었다. 1970년대 초부터는 많은 레즈비언이 정치적으로 여성 운동으로 이동하고 분리주의 성향을 보였다. 게이와 레즈비언 두 부문 모두 실천적으로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선에서 멀어지고, 기존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노선으로 기울었다. 게이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추구하고, 레즈비언들은 남자들에게서 벗어난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했다.

동성애자들의 영역은 전례 없이 확장됐다. 게이 클럽, 디스코텍, 상점들이 생기면서 동성애자들은 평균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특별한 소비자층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게이 패션(‘카스트로 클론’ 패션이 가장 유명한 사례다)과 게이 휴양지까지 있다. 게이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소비하느냐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성애자 기업들은 자체 협회가 있다. 그 협회에서 우세한 사상은 대체로 동성애자 미디어에서 온다. <게이 뉴스>는 모든 동성애자가 계급을 초월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뿐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동성애자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게이 감수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동성애자가 이러한 ‘게이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때때로 그런 주장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의 소설을 읽고 오페라를 즐기고 소나무 가구를 좋아한다는 등의 조악한 게이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는 중간계급의 라이프스타일이었다. 이런 인식이 만연한 것은 동성애자 운동 안에서 중간계급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을 반영한다. 사실 모든 동성애자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상은 특정 계급과 그 계급의 이해관계가 다른 계급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을 은폐한다.

차별은 경찰, 학교 등 여러 행위자들을 통해 경험되지만, 동성애자 차별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형태로 가장 먼저 경험된다. 적대적인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중간계급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다. 커밍아웃을 하려면 그럴 공간과 자신감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생계가 안정돼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보다는 중간계급이 이런 조건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대다수는 노동계급이다. 그들은 커밍아웃을 하거나 자긍심을 갖지도 못한 채, 대부분 이성과 결혼까지 하고 골방 속에 숨어서 평생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꽃피우지 못한다. 이러한 다수가 우익의 백래시에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 동성애자 운동은 정작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하고 있다.

## 영국 노동당

동성애자해방전선의 전성기와 1970년대에 영국에서 노동당에 관심을 갖는 투사들은 거의 없었다. 혁명가와 동성애자 활동가 대부분은 노동당에 주목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커밍아웃 때문에 이뤄진 해고에 맞서는 투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 노동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당이 주도하는 지방 정부가 해고의 주체이기도 했다! 1979년 수잔 웰은 레즈비언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는 이유로 노동당이 이끄는 뉴엄 지방 정부에서 해고당했다. 이런 사례가 허다했다.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매우 반동적인 성 정치 전력을 갖고 있었다. 노동당은 1920년대 성 개혁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노동당 내에서 금욕적 감리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일부 세력은 동성애를 상류 계급의 비행쯤으로 취급했다. 이는 스탈린주의와 아주 유사한 태도였다. 1960년대에도 노동당은 동성애자의 권리나 이들을 위한 개혁 입법을 하나도 지지하지 않았다. 관련 입법은 당론 없이 치러지는 자유 투표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노동당은 보수적인 감리교회 유권자들과 가톨릭 유권자들을 늘 의식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변인 구실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적 이민자 통제의 역사를 보면, 노동당이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처럼 '확고한 헌신'을 약속한 쟁점에서도 보수당만큼이나 전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프리카 출신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과 이등 시민권을 도입한 것도 노동당 정부였다. 인종차별적 백인 유권자의 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의 실패는 단지 부정직함이나 몇몇 개인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개량주의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노동당은 총리 집무실에 입성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을 쥐지 못했다. 여전히 국가의 운영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와 판사, 군 장성들의 손에 있었다. 노동당 정부는 그들의 행동과 편견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970년대에 활약한 동성애자 활동가 다수, 어쩌면 대부분이 지금 노동당에 들어가 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구별되는 의미의) 동성애자 운동은 거의 개혁주의적이 돼 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1970년대 계급투쟁이 소강하자 당장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활동가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그들이 보기에 노동계급은 사회를 변혁하고 새 세계를 건설할 힘이 더는 없어 보였다. 노동당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 듯했다. 다양한 조류가 공존하는 노동당의 구조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활동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당의 구조를 활용해 더 폭넓은 노동 운동의 일부가 되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혁명적 사회 변화라는 목적은 점진적 개혁으로 대체됐다. 언어는 비록 달랐지만 동성애자해방전선 이전의 '동성애자 평등권 운동'과 같은 정치, 즉 말이 통하는 위원회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정치로 되돌아간 셈이다.

동시에 노동당의 일부도 변화하고 있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의 행보에 환멸을 느낀 당내 좌파가 전통적 노동당 정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1980년대에 토니 벤이 노동당 내 새로운 좌파의 중심 인물이 됐다. 그는 그저 당대회에서 적절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노동당 정부는 그런 결의안을 늘 묵살했다) 당 구조를 개편해서 활동가들이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좌파는 1970년대 운동이 낳은 새로운 정치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전의 노동당 좌파보다 차별에 맞선 투쟁을 훨씬 강조했다. 그 투쟁을 위해 상보적인 두 전술이 채택됐다. 하나는 당의 정책과 당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 차원의 당내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좌파의 발판을 확보해 당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얻어 내기 위한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력 있게 벌어졌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몇몇 지방 의회는 차별 금지 채용 정책을 통과시키고, 동성애자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레즈비언 소위원회와 게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986년 노동당 당대회는 동성애자 권리 지지 입장을 공

식 채택했다. 다음 총선 공약에 해당 쟁점을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3분의 2 득표를 확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그 바탕에 있는 선거주의 때문에 동성애자 권리 지지를 표명했다가도 언제나 머뭇거렸다. 1983년 이후로 동성애자 권리 지지는 당 안팎의 우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 공격 앞에서 노동당은 끊임없이 후퇴했다. 동성에 배척 정서는 광범하고 뿌리 깊었으며 에이즈를 둘러싸고 언론들이 부추긴 히스테리에 의해 몇 년 사이에 크게 강화됐다. 언론들이 에이즈를 '동성에 역병'으로 묘사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자 동성애자 운동과 노동당 내 동성애자 활동가들은 더 수세에 놓였다.

동성애자 권리 지지 입장이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노동당은 형편없이 실패했다. 1983년 버몬트 보궐선거에서 노동당 후보 피터 태철은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동성에 혐오 공격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노동당 대표 마이클 쏫은 그를 노동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이클 쏫의 후임자] 닐 키녹은 마녀사냥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피터의 문제는 마녀와 요정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터 태철이 속한 지구당(좌파)은 그에게 동성애자임을 밝히지도 말고 비난에도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결국 노동당은 광포한 반동성애자 운동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충돌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미 선거 운동의 쟁점이 된 이상 그런 전술은 자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에 배척의 물결을 타고 자유당-사민당 연합이 승리했다.

몇 달 후의 총선에서 벌어진 일은 더 나빴다. 노동당은 버몬트에서 안전한 이성애자 후보를 내세웠다. 이 점을 부각하려고 선거운동 전단지에 후보 독사진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를 꼭 껴안은 사진까지 실었다. '정상적'임을 보여 주려고 말이다.

1986년 노동당 당대회에서 동성애자 권리에 관해 좌파가 승리를 거둘 때에도 쟁점을 덮으려는 똑같은 시도가 있었다. 해당 안전에 대한 15분간의 토론 시간을 용의주도하게 조절해, BBC방송이 당대회 생중계를 잠시 중단하고 '놀이 학교'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시간대로 맞춘 것이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지방 의회들은 노골적인 고용 차별을 폐지하고, 레즈비언과 게이 소위원회를 도입하고, 지역 동성애자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것은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 의회 조세권에 대한 제약을 막아 내지 못한 탓에 이런 위원회들과 단체들은 재원 부족에 시달렸다. 그래서 동성애자 대부분에게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했다. 동성애자 권리 문제에서 더 나아간 곳은 사실상 하링게이 지방 의회가 유일하다. 그 지역 노동당 의원들은 '긍정적 이미지'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그 정책은 지방 의회의 모든 표현물에서 동성애자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장려했다. 특히 학교에서 이를 적용해 이성애만이 '정상적'이라는 관념에 맞서려는 것이었다. '긍정적 이미지' 정책은 지방 의회의 공식 정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당 의원단이 이를 지지하면서 1986년 지방 선거에서 쟁점이 됐다.

지역 보수당원들은 즉각 우익적 백래시를 부추겼다. '부모 행동단'이 결성돼 '변태 성욕'에 맞서 '건전한 가족 가치'를 옹호한다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몽상가가 아니고서야 그 정책이 아무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비극은 노동당이 그런 극성스러운 우익에 맞설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백래시에 맞선 운동이 시작됐지만, 그 운동은 주로 노동당 바깥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 운동은 '긍정적 이미지' 정책을 지방 의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지방 의회를 더 ‘난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일절 삼갔다. 그 결과 지방 의회가 후퇴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맞설 수 없었다.

노동당 하링게이 지구당은 ‘긍정적 이미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폐기한 적이 없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동성애자의 권리가 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자 가장 뛰어난 노동당 지방 의원들도 그 쟁점을 회피하려 했다.

1986년 후반에는 결정적인 배신이 벌어졌다. 백래시가 흑인 공동체로 확대돼 ‘흑인 부모 행동단’이 결성됐다. ‘동성애는 흑인 가족을 약화시키려는 백인들의 음모’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결국 1986년 12월 그 단체의 지도자 한 명이 ‘긍정적 이미지’ 정책을 공식 후원했던 하링게이 교육위원회의 인종 관계 고문으로 임명됐다.

1987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자유당-사민당 연합은 노동당을 ‘미치광이 좌익’으로 몰아세우는 수단으로 동성애자 문제를 이용했다. 노동당은 공격 받을 때마다 계속 후퇴했다. 1987년 2월 그리니치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단지 후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주했다.

자유당-사민당 연합이 그 선거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두자, 노동당 대표 닐 키녹의 언론 담당 비서 패트리샤 휴잇은 한 노동당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레즈비언·게이 이슈가 연금 수령자들 쪽에서 큰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서신은 즉시 노동당 내부자에 의해 루퍼트 머독의 <선>지로 유출됐고 <선>지는 그 서신을 이용해 동성애자 권리를 거세게 공격했다.

동성애자 권리 지지를 진작에 폐기하기를 바랐던 노동당 내 우파는 즉시 거기에 편승했다. 휴잇은 결코 극성스러운 우익이 아니었다. 1970년대에 그녀는 ‘전국 평등권 회의’ NCCL의 간사로서 NCCL이 동성애자 차별에 맞서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그 단체를 이끈 바 있다. 다만 그녀는 노동당이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 정치의 논리를 유독 뚜렷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동성애자 권리 지지는 득표 유인이 아니기에 폐기하는 게 낫다.

노동당 내 좌파 대부분도 휴잇의 편지에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 패주에 가세했다. 동성애자 권리를 가장 분명하게 지지했던 런던시 노동당도 이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우파의 백래시도 시들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민 규제의 역사를 보면, 그런 후퇴는 극성스러운 우파의 입맛을 돋울 뿐임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우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당의 투쟁 회피는 필연적으로 우파의 더 많은 공격을 불렀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노동당은 더 후퇴했다. 지방정부법 제28조(6쪽의 머리말 참고)가 발의됐을 때 노동당 지도부의 첫 반응은 지지였다. 그것이 동성애자 권리 옹호라는 당대회의 분명한 결정 사항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 노동당 고위 인사는 이렇게 간단히 일축했다. “그때부터 선거에서 계속 졌잖아요.”

물론 크리스 스미스, 켄 리빙스턴, 데니스 스키너 등 노동당 좌파의 일부는 옹케도 그런 후퇴에 동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당 지도부에 의해 사실상 주변화됐다.

노동당의 최근 행적은 그들이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만만찮게 싸우기는커녕 기존 권리를 방어하는 데서도 믿음직스럽지 않음을 보여 준다. 위로부터 체제를 개혁한다는 노선은 필연적으로 동성애자 해방처럼 인기 없는 대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나아갈 길

동성애자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사회에서 없앨 유일한 해법은 사회주의, 즉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소책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동성애자 차별의 근원은 자본주의의 구조와 조직 방식에 있다. 문제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관념이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그런 관념들에는 물질적 토대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동성애자들이 가족 제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때문에 동성애자 차별은 자본주의에서 사라질 수 없다.

동성애자 차별에 맞선 투쟁의 역사는 사회주의 운동과 계급투쟁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초기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동성애자 해방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필수적 일부로 여겼다. 좌파가 패배하면 동성애자 권리도 후퇴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됐다.

차별받는 집단 혼자 힘으로는 해방을 성취할 수 없다. 다들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계급 분단이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와 실천 전반에 영향을 끼쳐 왔다. 동성애자 해방은 계급 문제다. 노동계급 동성애자들은 가장 차별당하면서도 가장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쟁취한 성과와 개혁에서 가장 배제된 집단이다. 동성애자 운동에서 가장 급진적인 동성애자해방전선조차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지 못했다. 동성애자들의 세계를 포함해 사회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분단은 계급 분단이다.

대부분의 동성애자에게 노동계급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을 해방의 열쇠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재 동성애 혐오적이고 폭력을 자행할 가능성이 큰 집단에게 기대를 걸리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기에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분열, 흑인과 백인의 분열, 남성과 여성의 분열 등)은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은 언제나 그런 분열을 조금씩 허문다. 계급투쟁이 이례적으로 고조되면 수 세기 동안 이어지던 편견도 깨질 수 있다. 투쟁이 사회의 온갖 '정상적인' 분단선을 가로질러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때문이다.

혁명 전 러시아에서는 지독히 반동적인 러시아 정교회와 수 세기에 걸친 후진성 탓에 유대인 혐오가 극에 달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공직에 오르거나 땅을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 유대인 마을은 공격받기 일쑤였고 인종청소를 당하기도 했다. 유럽을 통틀어 러시아만큼 맹목적인 유대인 혐오가 심각한 지역이 없었다. 그럼에도 1905년 혁명과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건설한 가장 중요한 기구인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는 유대인인 트로츠키를 지도자로 선출했다. 1917년 후반 노동자 소비에트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볼셰비키의 지도자들 중에도 유대인이라고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 있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 세기 동안 이어지던 편견을 극복해 냈다.

더 근래의 사례로는 1984~1985년 영국의 광원 노동자 대파업이 있다. 동성애자들이 모임을 꾸려 파업 광원들을 지원했고, 그 결과 1985년 자공심 행진 때는 광원 노동자들이 자기 노조 지부의 현수막을

들고 노조 관악대와 함께 선두에서 행진했다. 파업 전까지만 해도 이 노동자들은 성 문제에 관해 보수적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광원 노동자들은 전원 남성이었다. 여성들이 갭도에서 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광원 노동자들은 대도시나 동성애자 세계의 '퇴폐적'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일부는 파업 동안의 경험을 통해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게 됐고, 몇몇은 커밍아웃할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 파업은 방어적 파업이었고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반동적인 관념을 떨쳐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투쟁이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변화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투쟁은 사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열 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의 가장 앞서나간 부분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동성애자 해방을 지지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사회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동성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명적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극도로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유럽경제공동체EEC는 막대한 돈을 식량 비축에 쓰고 영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돈까지 지불해 가며 식량 생산을 말리고 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으로 입에 풀칠하고 있는 한편, 런던에서는 1940년 공습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모든 사람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기술과 발명품들이 이미 있다. 그러나 그 기술과 자원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다.

자본주의는 분열 지배 전략을 위해 이간질하고 증오를 조장하기를 일삼는 사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고 새 세계를 건설할 세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바로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은 모든 차별과 착취를 끝장낼 힘이 있다. 그러려면 노동계급은 낡은 사회 체도를 부수고, 사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신들의 민주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대표들로 이뤄져 있고 사회가 무엇을 생산할지 통제하는 진정한 힘을 가진 노동자평의회가 그것이다. 지금은 이런 과업이 엄두도 못 낼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투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는 언제나 이러한 노동자평의회가 등장했다. 지난 15년만 보더라도 1973년 칠레, 1975년 포르투갈, 1980~1981년 폴란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투쟁들은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체제 자체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세계적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런 격변은 훨씬 빈번해질 것이다.

현재 동성애자들은 언론이 불러일으킨 거센 백래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온건 좌파와 노동당 지도부는 꿈무늬를 빼고 있다. 그런 만큼 모든 사회주의자가 동성애자 해방이라는 대의를 방어하고 주장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동성애자 해방은 현실이 되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인위적 분단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사회주의는 단지 모든 착취와 차별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모든 편견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다.